

[종합·해설]

에리카 김 “동생이 99년초 후보 처음 만나” 李 후보측 “그 당시엔 몰라...2000년초 대면”

■ 김경준-이명박측 공방 2라운드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김경준씨 측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측 간의 진실 게임이 접입경이다. 21일 김씨의 부인인 이보라씨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BBK의 실소유주가 이 후보임을 주장하며 근거를 제시하자 한나라당은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다.

22일엔 김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 변호사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이 후보의 BBK 관련 의혹에 대해 좀 더 구체적

적인 주장을 펼쳤다. 진실 공방 2라운드가 펼쳐진 것이다.

◇첫 만남=김씨와 이 후보의 첫 만남 시점이 중요한 것은 BBK 투자문 설립에 이 후보의 관여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 측은 99년 초 이 후보를 만났다고 주장했지만 이 후보 측은 2000년 초라고 반박한다. BBK는 1999년 4월 설립됐다.

따라서 김씨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

면, 이 후보는 “나중에 알게 됐다”는 BBK 창업을 김씨와 미리 협의했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된다. 에리카 김은 이날 방송에서 “제가 이 후보를 만난 것은 99년보다 훨씬 전이고, 동생이 만난 것은 99년 초”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에리카 김의 주장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박형준 대변인은 “그 당시에는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관계였고, 김씨가 사업제안서를 들고 온 것이 2000년 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측=BBK가 이 후보의

것이라는 증거로 김씨 측은 이명박측을 들고 나왔지만 이 후보 측은 조작됐다고 맞서고 있다.

에리카 김은 이날 방송에서 “계약서 4개를 모두 봐야 의혹의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며 “4개 중 한글로 된 계약서가 이 후보 본인이 BBK의 소유주라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은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미국 소송에서 벌써 제출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 클린정치위원장 홍준표 의원은 “국내에 송환된 이후 뒤늦게 새로운 문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 법정에 제출해 증거 배척된 문서이거나 새로 위조한 분명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빅딜 제안=김씨 측은 이 후보 측이 빌(거래)을 제안했다고, 이 후보 측은 오히려 김씨 측이 빌을 수차례 제안했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김씨 측이 지난해와 올해 등 2~3차례에 걸쳐 협상 제안을 했지만 ‘죄가 있으니 타협을 보려고 한다’는 역공작 가능성이 있고, 범죄인과의 협상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거절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에리카 김은 “절대로 사적으로 우리 쪽에서 한 것은 한 번도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재판 절차상 (이 후보 측과) 협의회를 가져야 하는데, 거기서 이명박측 측이 우리한테 빌을 하자고 제안한 내용이 있다”고 반박했다.



BBK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인 김경준씨의 모친 김영애씨가 한국으로 가기 위해 22일 새벽 1시10분(현지시각) 출발하는 대한항공 KE016편 수속을 밟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 시스템 난맥상 드러나

李 친필서명 검찰 제출 당-후보 ‘엇박자’

일부선 ‘양동작전’ 평가

한나라당이 대선정국의 주요 고비마다 내부 혼선을 빚어 위기관리 능력과 시스템의 난맥상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이 발표한 공식입장이 이명박 후보가 몇시간만에 뒤집히는가 하면 설익은 외부인사 영입안과 외국정당 면담계획을 발표했다가 망신을 당하는 등 매끄럽고 일관된 의사결정과 시스템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 당 후보가 의도적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 ‘양동작전’을 구사함으로써 유연성을 기하려는 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21일 밤 KBS-TV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 출연, 이른바 ‘BBK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와 정에서 친필서명을 요구할 경우 “개인적으로 안 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응할 것임을 밝혔다.

당 대변인이 같은 사안을 두고 “검찰이 이런 요구를 한다면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를 개시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이에 응할 수 없다”면서 강조한 ‘당 방침’

을 약 4시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당과 후보와의 이런 ‘엇박자’는 과거에도 수차례 반복됐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출마선언이 기정사실화되던 이달 초 당은 ‘대선자금’을 거론하며 포문을 열었으나 이 후보는 “끝까지 찾아보고 설득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지난 7월 발표한 신 내북정책인 이른바 ‘한반도 평화비전’에 대한 내부 혼선도 비슷한 경우다. 정형근 의원에 의해 발표된 한반도 평화비전은 당시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공개돼 사실상 당헌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이회창 후보와 ‘보수적 논쟁’이 벌어지면서 이명박 후보는 ‘당헌으로 정해진 바 없다’며 발을 뺐다.

한나라당은 또 지난 14일 중앙선대위 산하 경제살리기특위 고문으로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손성원 전 LA한미은행장 등을 영입했다고 발표했다가 진전 장관과 손 전 행정 등이 부인하면서 곤욕을 치렀다. 앞서 지난달 초에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이 사실상 성사된 것처럼 발표했다가 무산돼 외교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 민주평화국민회의는 22일 광주우체국앞에서 ‘부패척결과 광주정신지키기 문화의 밤’ 행사를 열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의 자녀 위장 취업 등에 대해 규탄하고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李 재신임’ 문자 메시지 돌아

한나라, 수사 촉구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 이 후보의 재신임을 촉구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나돌아 당이 22일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당 분열을 획책하는 괴문자 메시지가 계속 들어온다”면서 “내용은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이 후보의) 재신임을 얻어야 한다’ 등의 이런 문투”라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어찌든 당 분열을 일으키는 일이고 내분을 조장하려는 일”이라며 “선거법에 위배되는 이 괴문자 메시지를 누가 보내는 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 핵심 측근은 “대선을 목전에 두고 도대체 누가 이런 문자를 보내는 지, 또 의도는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문자 발송자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李 후보 위장취업 등 철저 조사하라”

광주·전남 민주평화회의

광주·전남 민주평화국민회의(상임대표 정용화·최연석)는 22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를 겨냥 “지지를 1위를 달리는 공당의 대통령 후보가 두 자녀를 자신의 회사에 유령 취업시키고 세금을 탈루한 것은 잘못된 경제관과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며 국제청과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후 5시 광주시 동구 광주우체국앞에서 개최한 ‘부패척결과 광주정신 지키기 문화의 밤’ 행사에서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이런 비도덕적 행위는 수백만 청년실업자와 20대 비정규직 취업자를 일컫는 ‘88만원 세대’를 분노와 비탄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이 후보의 공개 사과와 공적 활동 중단을 촉구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이명박 후보에 받은 BBK 명함 공개

이장춘 前 외무대사 “2001년 5월에 만나”

한나라 “위조된 것”

이장춘 전 외무부 대사가 22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BBK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 후보로부터 직접 받은 BBK 명함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명함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의 홈페이지 ‘조갑제닷컴(www.chogabje.com)’에 따르면, 이장춘 전 대

사는 22일 오후 ‘조갑제닷컴’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2001년 5월 30일 이명박 후보의 사무실에서 이씨로부터 명함을 직접 받았다”며 ‘eBank-Korea.com, BBK투자자문회사, LK-eBank·eBANK증권주식회사’라는 명칭 위에 ‘李明博 會長/代表理事’(이명박 회장/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제시했다.

김경준씨 부인 이보라씨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의 BBK명함이 있다고 주장하자 한나

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위조된 것이거나 사용하지 않고 폐기된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이 후보 측은 그동안 ‘위조’라고 주장해왔다.

BBK는 2001년 4월 28일 불법행위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등록취소가 됐었기 때문에 이 전 대사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는 BBK가 등록 취소된 한 달 후에도 BBK명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사는 이 같은 인터뷰에 앞서 ‘조갑제닷컴’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는 그가 소위 ‘BBK사건’에 관련하여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 이실직고하며 회개하기 바란다”며 “이명박 후보의 거짓말에 한나라당·보수연론·일부 애국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따라가는 바람에 대(對) 국민사기극의 집단공범이 되어 버렸다”고 맹비난하며 사실상의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산행안내 (Hiking Guide) section with various notices and information for hikers.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Magic Free Student Recruitment) advertisement for a magic school.